

# “꼬마들 위한 ‘짬뽕음악교실’ 난리났죠”

그들의 유쾌한 상상

## 문화판을 바꾸다

〈2〉 ‘문화복덕방 탱글’ 유은숙·안의정 대표

클래식 연주자에서 공연 기획자로 변신  
‘갤러리 콘서트’ ‘그럴싸한 음악소리’ 성공 거둬  
‘잡초 프로젝트’ 통해 ‘마카롱 팝 밴드’ 등 팀 구성  
새 연주자 발굴·정기공연 등 올해 목표



◀연주자에서 기획자로 변신한 ‘문화복덕방 탱글’의 유은숙(사진 왼쪽)·안의정씨의 목표는 예술가들이 직업으로 예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해 아크 갤러리와 515 갤러리에서 매달 ‘갤러리 콘서트’라는 문화 이벤트가 열렸다. 갤러리 공간이 미술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공연장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 것. ‘미술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이제는 매달 한 차례 열리는 콘서트를 기다리는 ‘팬’도 만들어졌다. 갤러리 콘서트는 초보 문화 기획자인 ‘문화복덕방 탱글’의 유은숙(여·40)·안의정(여·39) 대표가 처음으로 기획한 행사다.

두 여장부는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방과 후 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첼로를 전공한 유 대표와 플루트를 전공한 안 대표는 ‘불안정한 직업’에 회의감이 들었다.

“바이올린 전공 방과 후 교사 1명을 뽑는데 30~40명이 몰리기도 해요. 악기를 전공한 사람들이 정작 사회에 나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디다. 대부분 행사장에서 반주를 하는 것이 전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대를 우리가 직접 기획해보자는 취지로 탱글을 만들었어요. 주위에서는 ‘광주에서는 공연으로 돈을 못 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유은숙)

두 사람은 예술인들이 예술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4월 문화복덕방 탱글의 문을 열었다. 탱글(Tangle)은 사람과 사람들이 얽혀, 서로 이어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무대에 서보기만 했던 두 사람은 기획 관련 서적을 사서 공부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냈다. 우선은 안 대표가 활동하고 있던 클래식 밴드

‘아트 통(通)’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기획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갤러리 콘서트다.

“운이 좋게 갤러리 아크와 515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연을 맺고 매달 한차례 정기적으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공연은 무료로 해요. 우리가 그 전시에서 하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죠. 작품을 보고 처음으로 곡을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자작곡도 벌써 5곡이나 되네요.”(안의정)

갤러리 콘서트를 시작하고 나니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한국에 숨인복지재단 문을 두드렸다. 공연에 필요한 사람, 예술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을 키워내고 싶었다. 그렇게 기획한 것이 지난해 9~12월 진행된 ‘잡(Job) 초(Choice) 프로젝트’다. 20대부터 50대 아홉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악기 전공자도 있고, 음악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꿈을 포기했던 사람도 있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자 각자 클래식 밴드 ‘아트 통(通)’, 일렉 바이올린 ‘pitch-black(피치 블랙)’, 프로젝트 밴드 ‘엠티 곱 프로젝트’, 클래식 팝 밴드 ‘마카롱 팝 밴드’ 등으로 팀을 구성해 무대에 설 수 있게 했다. 이 팀들은 현재까지도 탱글 멤버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그럴싸한 음악소리’는 두 사람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기획이었다. ‘관객들에게 공연비를 돌려주자’는 취지로 기획된 공연은 두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난리가 났다”고 한다.

“자녀들과 학부모가 함께 관람하는 무료 공연이었어요. 인터넷을 통해 티켓 396매를 사전 배포했는데, 비록 무료지만 2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공연 참석자들에게는 밥버거와 생수를 나눠줬어요. 공연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으로 꾸며졌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싫어했겠지만 저희는 이 공연에서 기획에 대해 많이 배웠죠. 하하.”(안의정)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유료 공연 ‘탱글 탱글의 짬뽕음악교실’도 성공을 거뒀다. ‘7세 이하 관람불가’라는 광주공연장의 현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영유아부터 모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준비했다. 아이들을 위해 4교시(4개 코너)로 나눠, 15분 공연 후 휴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휴식 시간마다 반장 선거 등 이벤트를 진행했다. 집중도가 낮은 아이들을 위해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전곡을 들려주는 코너도 있었다.

지난해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다양한 기획들을 시도하는 해였다면 올해는 새로운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지난해 기획들을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지난 1년 기획이라는 것을 해보면서 예술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했어요. 함께 기획해보자고 하면 아직도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해는 쉼터 청소년 직업 교육을 위한 ‘일곱 난쟁이의 사과공장’, 브런치 시간을 이용한 ‘영화에 풍덩 빠진 클래식’, ‘SML밴드’ 등을 새로 기획하고, 짬뽕음악교실을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유은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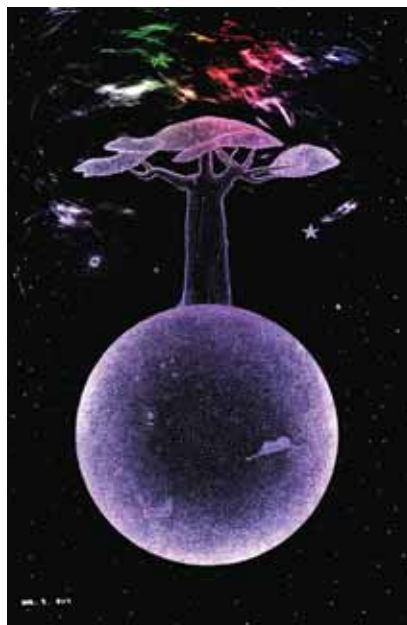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궁궐갤러리 ‘예술가의 務’·한평갤러리 ‘무담시’

무들마루사업단(총감독 신호윤)이 예술의 거리 궁궐갤러리와 대인예술시장 한평갤러리에서 광주의 담론을 묻는 전시를 잇달아 개최한다. 궁궐갤러리에서는 오는 17일까지 청년 기획전 ‘예술가의 무(務)’전을 연다. 전시에 참여하는 김경란·김탁현·채지윤씨 등 청년작가 3명은 예술가의 입구에 대해 자문자답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경란씨는 플라스틱 병과 페비닐 등 재활용 오브제를 이용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김탁현씨는 아크릴 소재 위에 ‘어린 왕자’와 ‘눈꽃’을 섬세하게 재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대인예술시장 한 평 갤러리에서도 오는 30일까지 ‘무담시(無談詩)’ 연작 두 번째 전시가 열린다. ‘무담시’는 ‘괜히’라는 의미를 지닌 전라도 사투로, ‘담론이 없는 도시’에 대한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를 나타낸다. 새해에는 논쟁을 통해 담론을 생산해 보자는 참여 작가 성혜림·이인성·정대엽·서영실·김형진·임현채·배수민·정유승·전준모·정지선씨의 염원이 담겨 있다. 문의 062-670-7452 (광주문화재단), 062-471-1515 (무들마루사업단).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김탁현 작 ‘어린왕자’



‘바라보다’

## 박은지 ‘바라보다’전, 22일까지 금호갤러리

2013년 금호갤러리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된 박은지씨의 개인전 ‘바라보다’가 22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열린다. 박씨의 세 번째 개인전이다. 박씨는 물질문명으로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희망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그는 인물들을 통해 사람에 대한 갈망의 작품을 담았다. 누군가에 대한 갈망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며, 건조하고 혼미한 일상에서 깨어남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지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사랑

과 기쁨 등 그동안 우리들이 잊고 지냈던 감정들을 표현한다. 이 때문에 박씨가 보여주는 시각적 이미지는 현대인들에게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박씨는 “무기력해지고 감각이 무뎠던 현대인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의지를 회복시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선대에서 서양화와 한국화를 복수전공하고 동대학원을 졸업한 박씨는 전국 바다사생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추천작가, 광주청년미술작가회와 선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360-843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축원룸전문(전대1분)**

★전대상대 1분

등기완료, 공실없음 월수익 420만원 5000수익 최고위치,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매가 6억3천** (보증금 3천, 용 1억)

★전대용봉지구모아미래도APT코너

신축 4층 룬 19개(1층 상가, 4층 주택)

월수익 850만(1년 1억원 수익) **매가 12억**(용 3억, 보 1억)

**전대전문 원룸**

룬 15개 월수익 500,매가 6억3

**전대예술대 2분 코너앞**

룬 13개(4층 고급주택 40평 1개) **매가 7억8천**

즉시입주가 가능 최고위치 월수익 455만원(4층주택 사용가)

★수원지구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1층임대(18평) 보2천 월110만
3층매매(85평) 3억2천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모아엘가 상가 3층	
3층매매(62평) 2억8천	3층임대(62평) 보5천 월150만
세계로 병원 대로면	학원,병원, 사무실 기타적합
쌍촌동운천역1분	원룸형 주택 11평 매3500/13평 매4500

신한공인중개사 ☎010-6670-9800

**경매전문**

**경매 투자 하실 분!**  
(공동투자가능)

(상가, APT, 원룸, 토지, 근생, 기타)

**권리분석·입찰**  
**매매·임대·자금**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 해드립니다.

◎경매 직원 구함◎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주)대신경매 ☎062-527-7600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을 대로면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임동 요한병원 부근 4차선변 상업거리 2140㎡(646) 건물 227평 공시지가 14억7천 매도12억2천
- 금매, 지하철 쌍촌역 사거리 대로면 준주거 377㎡(111평)병원·사육·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적합 7억6천
- 광주은행 본점 부근 상업지 694㎡(210평)공시지가 11억 6천 매도10억6천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금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접 대지 149평 건평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법인이전 7억6천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청평면 고속도로 입구 2425㎡(734) 공시가에 매도 3860만원 통물사육·아직정등 적합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충6억2천 매도 8억3천
- 임야 무안군 풍탄면61890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6천
- 사할적합 건물 함평군 월야면 땅 2657㎡(804)건물 2동 57평 은행 2억 2천도원 할수 있는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전원주택지 청풍동 777㎡(235)1억5천
- 북동 상업지 992㎡(300)오피스텔, 생활주택 등 대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촌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임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초 층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